

<로고스를 입다-정의란 무엇인가(팀켈러)>

제 7장 ‘우리’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 (비그리스도인과의 협력하라)

김성우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은 동료 크리스천들의 지원과 이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분투하는 경우에는, 신앙과 종교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일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 편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특정한 이웃들 틈에 들어가 공의를 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크리스천들은 적잖은 이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한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아예 신앙이 없는 이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할 것인가?

①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넌크리스천과도 손잡아 되는가?

현대 문화 속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누구나 동의하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예: 대표의 파견자 선정에 따른 ‘정의’의 주장) 그래서 다들 도깨비 방망이처럼 단어를 휘두른다. 저마다 독선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상대방도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는 걸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② 정의의 본질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어휘들은 정의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자유를 부르짖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의 자유를 해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한, 누구나 스스로 선택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러나 무엇이 해로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예:음란물의 제작)

③ 정의론에는 종교적 가정이 깔려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현대사회의 정의관을 ‘행복의 극대화’와 ‘자유존중’, ‘미덕 증진’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그때 그때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논의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정의와 연관된 관념들의 밑바닥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추론이 깔려 있는데,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미스는 통속적인 세계, 특히 정부와 정계, 학계를 지배하는 어떤 토론 규칙 같은 게 있어서 아무도 공적인 논의에 신앙적인 신념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도덕적 정당성이라든지 윤리적 악예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 사

항이다. 그랬다간 어떤 종교적 신념이 진리인가를 두고 끝없는 입씨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용어들만 가지고 정의를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의관은 인생과, 즉 실증할 길이 없는 신앙적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 낙태 등 정의에 관한 모든 설명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종교적인 가정들이 깔려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을 곧이 곧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한, 정의의 본질에 대한 합의를 이룰 길은 없다.

④ 겸손한 태도로 협력하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크리스천의 노력에는 겸손한 협력과 품위를 잃지 않는 도전이 드러나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 의롭고 공정한 삶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충분히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이들과 협력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기 쉽다. 그래서 안된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정의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걸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신학은 샌델 교수가 설명했던 반드시 현대사회의 다채로운 정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견해들에도 부분적으로 바르고 정당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공공복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잠언 역시 정의롭게 사는 이들은 재물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공동체와의 공동 소유물로 여긴다고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9:6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저마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종교가 다른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울은 일반계시로 직관적으로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은총을 통해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협력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근거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들만 공의에 관심을 쏟는다거나 자신을 희생해서 정의를 실현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속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모른 이들 가운데도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를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아 아는 이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 말씀만을 인용해서 설득해서는 안된다.

크리스천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한편, 함께 일하는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복음이 얼마나 큰 동기로 동력이 되는지 동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공통적으로 지닌 가치관(선, 진리, 정의 따위)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균형이 중요하다. 비신앙인을 공격적으로 몰아 붙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사회정의를 세우려다가 그쪽에 빠진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배척도 해서는 안된다.

샌들은 도덕성, 권리, 공동선 따위 요소 가운데 한가지만 상대적으로 월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성경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특정 정당이나 철학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정의를 행하는 기초가 성경임을 침묵하지 말라

사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신앙이나 신념의 차이를 얘기하기보다 잠자코 함께 일이나 잘해 나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 편이 덜 신경쓰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크리스천들의 남다른 정의관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믿음을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무언가를 바르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치평가는 늘 삶의 목적이란가 인간의 본성, 옳고 그름 따위에 관한 믿음에 토대를 두게 마련이다. (존재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 인권의 개념에 관한 성경으로부터의 시발점)

샌델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은, 도덕과 종교적인 믿음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작업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일이 결코 아니며, 본질적으로 신앙적이라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의 근원이 되는 성경적 뿌리에 관해서까지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고스를 입다-정의란 무엇인가(샌델)>

제7장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백인 여성 흡우드는 성적이 좋았지만 대학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의해 불합격하였다. 헌법의 평등권 보호 등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보면 취업과 대학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소수집단 우대정책 지지자들의 3가지 이유 즉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종 우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① 시험격차 바로 잡기

학업적성시험(SAT)을 비롯한 여러 시험들의 학문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예: 마틴 루터 킹). 시험 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과거의 잘못을 보상 받기에 정당한 수혜자인가?.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할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가 어떻게 생기는 가? 개인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과거 역사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③ 다양성 증대

우대정책 지지자들은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반박자들은 소수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훼손 한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

④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또한 우대정책이 그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하든 간에, 입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적 반박이다. 또 자기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자들의 권리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워킨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스스로 사명과 입학기준을 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기준에 더 부합한지 판단한 뒤에 그에 걸맞은 합법적인 기대를 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종별 우대정책에 동의한다.

⑤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흑인입학 금지정책과 간이식당 흑인 인종 차별 정책, 반유대주의를 누그러뜨린다는 명목으로 유대인입학을 12%로 제한하는 할당제.

⑥ 백인 우대 정책?

스타렛 시티, 입주자(인종) 조절 정책, 경험에서 우러난 인종적 '한계점', 안정적이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정책(백인 우대정책). 그러나 입주를 위해서는 흑인 가족은 최장 2년, 백인은 서너 달 기다려야하는 불평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소송과 법원의 판결은 현재의 할당제를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나옴.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가는 주택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⑦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도덕적 자격?

⑧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졸업생 자녀의 입학(유산)우대, 기여 입학생, 대학의 입학생 선발기준(능력: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돈) 등의 문제